**로 ﷽﷽﷽﷽﷽﷽﷽﷽5:12entant for the forgiveness from God.누가복음 공부 – 8-2 (누가복음 16:1-13)**

**누가복음 16:9-13 (돈과 하나님에 대한 싯귀)**

**1. 이야기에 대한 일반적 이해 (문화적, 사회적인 면)**

기자 누가는 이 부분을 통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 테오필러스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6:1-8), 예수님께서 마치 부정직함을 칭찬하고 장려하신 것처럼 오해받지 않도록 하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시의 양식으로 적어 놓았다.

1) 이미 앞의 비유 (누가복음 16:1-8)에서 누가는 테오필러스에게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는다는 것은 장차 도래할 세상의 마지막과 직접 관련 있다고 밝혔다. 부정직하지만 지혜로운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에게 그의 부정직이 아니라, 지혜로움 덕분에 칭찬받았다는 것은, 그가 주인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중시하며, 또한 청지기 자신을 향해 자비로우시가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한 행동들 때문이다.

2) 그러므로 누가는 그 비유의 끝 부분에 이 시를 써 넣어서, 예수님의 공사역으로 시작된 메시야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청지기가 영원한 미래를 어디서 살게 될 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3) 자연히 이 시의 바로 뒤에 누가는 많은 재물을 가진 부유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재물로 자신의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만 하는가를 테오필러스에게 알려 주기 위해 이 비유를 (누가복음 16:19-31) 기록한 것이다.

4) 특히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많은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는가라는 결정들을 내릴 피치 못할 위기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도래했다고 경고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정들에 따라서 자신들이 미래에 어디서 영원한 삶을 가지게 될 지 정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2. 신학적인 결론**

1)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해야 하며, 진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는 확실히 상호 연관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신실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룰 자격을 상실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기신 그 분의 것이며, 우리는 단지 그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2) 누가가 기록한 이 시는 재산을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는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취급하도록 맡기지를 결단코 않으신다고 가르친다. 부정직한 청지기는 그 누구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를 다룰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결단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몸과 마음을 모두 요구하시기에, 우리의 영혼이 두 주인을(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가르치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눈가림으로 속일 수 있을 지를 몰라도, 하나님깨서는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분명히 아시고 속지도 않으신다.

3)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서 우리가 가진 재물이 진리의 소중함에 비해 거의 무가치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런 재물들을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에 의거하여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용했을 때에야 만, 하나님의 진리가 귀하게 대접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여 관리하느냐에 따라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게 될 장소가 결정된다.